



복수 전공, 전과 기준 크게 완화

학사제도 유연화 일환

교학팀은 학사제도 유연화의 일환으로 학생 스스로 주도적 전공 선택권 보장이 가능한 복수(이중)전공 및 전과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중 전공과 복수 전공 일원화 요건 완화

개편 전 '이중 전공'과 '복수 전공' 제도를 '복수 전공'으로 모두 일원화시켰다. 신청 자격은 학기당 기존의 '17학점에서 이상에서 '16학점 이상'으로 1점 내리고 평점평균도 '3.0 이상'을 평점평균 '2.0 이상'으로 1점씩 대폭 완화했다. 개편된 복수전공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세 가지 △ 복수전공명 표기 졸업증명서 △ 제1전공 졸업증명서 △ 제2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과 요건 완화

신청 자격은 '1학년 2학기 수료자'(예정자)부터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면서 총 평점 평균 2.7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는데 개편안은 1학년 1학기 이수자(예정자)부터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2.0 이상 인 자로 완화했다. 복수전공 및 전과를 원하게 될 경우, 해당 학과장과 상담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으며 개편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최은희 학사부총장은 전공 개편에 대해 “다전공이수를 활성화하여 2개 이상 분야에 더 넓은 시각과 관점으로 접근,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미니설교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박태수 목사(성서학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구도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지리적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 (행 1~7 장), 유대와 사마리아 (8~12 장) 땅끝까지 (13~28 장),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것임을 보여준다.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미래 능동형이다.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es) 는 미래에 실제 일어날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므로 제자들에게

권능 (dunamis power) 을 받게 될 것과 예수의 증인 되게 할 거라는 강력한 약속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제자들이 스스로 증인 되길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얼 한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됨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자.

밀알 청소년캠프 20개 교회 80명 참가

“자원봉사자 섬김과 헌신에
정말 눈물 났다”



밀알청소년캠프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들

2024년 밀알청소년 캠프가 7월29일부터 31일까지 ‘믿음의 여정’(마6:33)을 주제로 교내에서 20개 교회 청소년 80명이 참가해 진행되었다. 재학생 자원봉사자 68명이 캠프를 섬겼다.

김창현 목사가 이틀간 ‘믿음의 여정’을 주제로 ‘모험’과 ‘증인’된 자의 삶을 전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우선 순위를 떠나 예수님을 향한 모험의 길과 제자로서 증인 된 삶을 보여준 표상이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따르자고 말씀하였다.

청소년들은 집회 전후 진행된 뜨거운 열기속 찬양에 흠뻑 젖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전문 외부 강사를 초청, 건전한 성에 관한 접근과 이해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큰 반향이 일었다. 늦은 밤에는 신앙 고민과 사연이 속속 내 방송으로 전달된 것도 추억이었고 각 교회 교사와 인솔자(30명)에게 김웅기 교수가 맞춤형 교육도 호응이 높았다. 잔디마당 물놀이하는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한껏 떨쳐버릴 만큼 시원한 기쁨을 듬뿍 안겼다.

인솔자들은 “이번 밀알청소년캠프의 모든 것이 감동 자체였다”고 소감을 남겼다. “파워 율동과 찬양이 큰 도전과 회복을 줬고 작년 캠프에서 받은 은혜보다 올해가 더 차고 넘쳤다”. “자원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에 정말 눈물 났다” 등으로 은혜와 감사를 전해 주었다.

2024년 밀알훈련 8월 12~23일까지 3차로 나누어 실시

섬김과 헌신, 제자의 길을 다짐하는
산교육의 현장

2024년 밀알훈련이 8월 12일~ 23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3차(1차 12일~14일, 2차 19일~21일, 3차 21일~23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여 명의 재학생, 대학원생이 훈련생으로, 교수, 직원, 재학생 6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한다.

밀알훈련은 우리 대학의 이념과 교육 목표의 확인 그리고 복음전도자로서 필요한 섬김과 헌신을 훈련, 준비된 제자의 길을 다짐해 가는 산교육의 현장이다.

프로그램은 예배와 노동, 산행, ESG 환경 특강 그리고 말씀 묵상 등이 준비되고 있다. 땅의 신성한 가치를 익혀 줄 노동은 자작나무 숲 주변의 산책로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게 된다. 우리 땅 걷기인 산행은 임도와 연결되는 1번 능선길을 따라 자연의 숨결과 호흡하며 겸손과 상호협력을 익히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전공, 학년과 관계없이 7개 조로 나뉘어 조원 상호간 협력과 공동체성을 더하게 된다.

훈련참가자들은 장마와 폭염이 오가는 일기를 감안, 여벌의 옷과 모자 신발(가급적 등산화)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다.

박상민 교수 SI 융합학부 신규 임용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회(이사장 강우정)는 지난 8월1일, 24-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학이 제청한 박상민 교수(사진)에 대한 교수 임용을 결정하였다. 박 교수는 신설 SI융합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섬기게 된다. 박 교수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 및 임베디드 시스템공학’ 전공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연구처 연구전담교수로 일해 왔다.

그는 “SI 융합학부를 통해서 우리 학우들이 복음을 위한 SI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어 “한국성서대 공동체에 속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축적해 온 모든 연구 경험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 26 주기 추모예배

7월 25일 로고스홀
윤두태 목사 설교



윤두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일립 강태국 박사 제26주기 추모예배가 25일 오전 로고스홀에서 거행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의 사회로 윤두태 목사(25회, 가성교회 총동문회장)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므로’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설립자의 저서 「나의 증언」을 중심으로 유년기 제주에서부터 발자취를 조망했다. 일제 치하 시절 송실전문학교에서 독립운동으로 붙잡혀 고초를 겪던 청년기. 박해를 피해 만주행, 해방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극동방송과 생명의말씀사를 탄생케 한 고인의 생애를 추적하였다. 고인은 교단 분열에 맞서 사역지를 떠나야 했으며 복음전파를 위하여 교회 설립과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며 살았던 그의 삶 전체가 형극의 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 삶을 모두 죽이고 한반도복음화를 위하여 평생을 사셨다”고 강조했다.

강우정 이사장이 “설립자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학교의 새 캐치 프레이즈인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에 설립자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다며 복음전파에 진력하자”고 인사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하나님은 설립자를 통해 밀알정신과 한반도 복음화 그리고 세상에 복음전도자를 내보내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 대학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세운 대학이기 때문이다”고 인사했다.

이병철(37회, 주향교회) 목사가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김동관(29회, 수원안디옥교회) 목사가 축도해 주었다. 총동문회가 추모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었다.

인기예예인

‘4인이 들려주는 복음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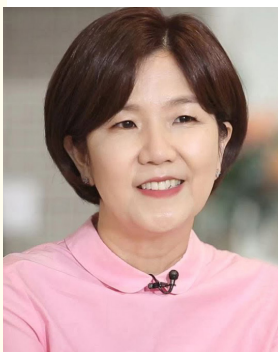
2학기 부흥사경회, 8월 27~30일까지
조혜련, 이성미, 신애라, 정선희 집사

2학기 부흥사경회가 8월 27(화)~30(금)일까지 나흘간 낮 12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경회는 ‘4인이 들려주는 복음이야기’를 주제로 목회자가 아닌 기독 연예인이 인도한다. 강사는 조혜련, 이성미, 신애라, 정선희 집사가 순서별로 각각 말씀과 삶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간증 형식으로 전할 예정이다.

현재 성서공동체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학우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목실 구광면 목사는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춘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진솔한 모습을 복음이 필요한 학우들이 접하게 될 때 공감과 구원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련 집사



이성미 집사



신애라 집사



정선희 집사

2 학기 성적장학대상자 발표

교내 외 장학 270 명 3 억 2 천여만 원
추소원 (영보 2)
1 · 2 학기 연속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추소원 (영보 2)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성적장학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25일 장학위원회를 열고 2학기 성적장학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대상자는 성적장학과 외부 장학 등 총 270명이며 전체 장학금 총액은 3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은 추소원(영보2) 학우가 차지하였다. 추소원 학우는 지난 1학기 전체 최우수에 이어 2학기까지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최우수성적장학'은 고주현(성서4) 학우 등 18명, '우수성적장학'은 임동민(사복4) 학우 등 35명이 기쁨을 얻었다.

영보 4학년과 간호 3학년은 실습 중이라서 실습을 마친 후 선정될 예정이다.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추소원(영보2)

◆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고주현(4) ▲임지영(3) ▲김주빛(2) ▲심경녀(1)

사회복지학과 ▲정혜민(4) ▲권하진(3) ▲강성우(2) ▲박지원(1)

영유아보육학과 ▲정지민(3) ▲변해원(2) ▲차승민(1)

컴소학과 ▲이주찬(4) ▲김원형(3) ▲남궁린(2) ▲오성균(1)

간호학과 ▲이예원(4) ▲하준우(2) ▲이소희(1)

◆ 우수성적장학 (2등 / 3등)

성서학과 ▲권샘(4) ▲장숙향(4) ▲임현정(3) ▲최재영(3) ▲이효정(2)
▲이하성(2) ▲신피터(1)

사회복지학과 ▲박지유(4) ▲임동민(4) ▲이예은(3) ▲이서희(3) ▲김시진(2)
▲박윤미(2) ▲이아진(1) ▲박정현(1)

영유아보육학과 ▲윤예진(3) ▲진수정(3) ▲박나윤(2) ▲정주현(2) ▲차현영(1)
▲ 김혜린(1)

컴소학과 ▲이제희(4) ▲김지예(4) ▲진은택(3) ▲김한별(3) ▲이대성(2)
▲임선아(2) ▲송준서(1) ▲여환서(1)

간호학과 ▲이웅기(4) ▲이지민(4) ▲이민서(3) ▲엄희지(2) ▲박예현(1)
▲문주희(1)

입시박람회 지원자들 'AI 융합학부'에 큰 관심

7 월 25~27 일까지 코엑스에서
300 여명 상담



교직원들이 지원자와 1:1 입시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한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7월 25~27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은 입학관리팀 신지수 팀장을 중심으로 22명의 교직원이 사흘간 약 300명의 지원자와 1:1 상담에 임했다. 올해 지원자들은 신설 'AI 융합학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 유보통합 이슈에 따라 영유아보육학과에 대한 문의도 활발한 편이었다.

신 팀장은 "우리 대학의 입시 상담은 해마다 간호학과가 높은 편이었으나 올해는 'AI 융합학부'를 타진해 온 학생이 많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원자들은 졸업자의 취업률에 민감하였고 소신 지원파가 많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입시 원서 접수일은 오는 9월 9~13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은 213명이다.

입시박람회에는 전국 4년제 149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정해덕 교수에 20년 장기 근속 포상

“하나님과 성서 공동체 모두에게 영광과 찬양”
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 후원도



장기근속감사패를 수상받은 정해덕 (왼쪽) 교수와 최정권 총장

20년간 성서대 교수로 헌신한 정해덕(컴소) 교수에게 장기근속자 포상이 수여되었다. 30일 교직원 경건회 직후 진행된 포상식에서 최정권 총장이 정 교수에게 근속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교수회에서는 축하 꽃다발을 선물하며 수상을 축하해주었다.

정해덕 교수는 “성서공동체와 함께 달려온 20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동의 시간이었다. 나의 이 여정이 가능하도록 동행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해덕(컴소)교수는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전소현 (간호 2)

간호학과 학우들, 호주 글로벌 챌린지 도전
ACU 대학, 간호박물관 탐방
한인 간호협회장 인터뷰

호주는 선진 간호와 사회 보장, 공공의료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의 간호학생들과 그들의 학습, 실습, 그 나라의 간호정책 등을 우리와 비교하고 싶었다. (6월 23부터 7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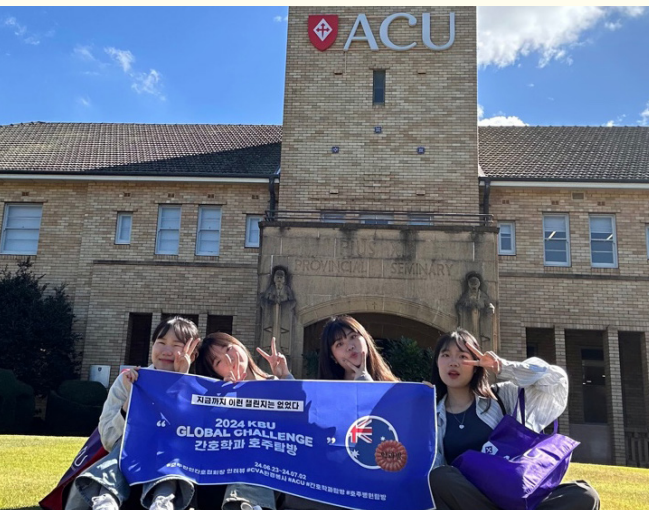
우리는 브리즈번(Brisbane)의 ACU대학(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을 방문하여 간호학과 관계자에게 간호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의료 관련 학생이 근무, 공공의료기관으로 사용돼 놀랐고 내용을 동영상으로 분석하며 좋은 공부가 됐다. 이어 박물관 2곳 Brislington Medical and Nursing Museum 과 Prince Henry Hospital Museum을 둘러봤다. 호주 의료 역사를 보며 전공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시드니에서는 한인 간호협회장과 한인 간호사를 만났다. 양 국가의 의료정책 및 간호 환경의 차이, 간호사, 조산사의 차이 등 진지한 안내와 설명이 이어갔다. 의료체계에 대해 고찰하며 전문인의 자세를 정립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팀원들의 코멘트는 긍정적이었다. 신요선은 “우리 나라도 책임 간호체계가 빨리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고, 장영현은 “박물관을 둘러보며 전공의 중요성과 학습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장서영은 “전문 간호사의 꿈을 재정립하며 진로에 큰 전환점이 됐다.” 전소현은 “박물관 담당자에게서 큰 인상을 받았고 사명 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하게 됐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도보로 시드니 시내 전경과 멋진 야경 감상은 감동이었고 호주의 상징물을 직접 보니 감회가 깊었다. 포트스테판 사막은 바다와 맞닿는 곳으로 광활한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정말 놀라웠다. 작지만 봉사활동도 잊지 않았다. 1시간 동안 해안가 쓰레기를 줍고 옮기며 청정 해변의 지속을 염원하였다.

호주 글로벌 챌린지의 팀장을 맡고 리더쉽보다 내가 좋은 팀원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먼저 손 내밀며 도와준 언니들이 감사하고 팀원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호주 브리즈번의 ACU 대학 교정을 방문한 글로벌 챌린지 도전자들,
왼쪽부터 전소현, 장영현, 장서영, 신요선 (모두 간호 2)

교내 주차 (정기권, 일반) 요금 인상

일일 주차 200 대로 과포화
통행로 침범 등 안전 위협까지

8월 1일부터 교내 주차 요금(정기권, 일반)이 인상된다. 주차 차량의 증가로 통행로가 막히는 등 캠퍼스내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주차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다. 바뀐 요금제는 학부생은 1개월 정기권이 100,000원, 대학원생은 70,000원(야간 주차 시 50,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직원과 외래교수는 학기 당 12만 원이고, 교직원과 재학생의 1일 요금은 2만 원이다. 동문과 일반인 대상의 1개월 정기권은 일괄 폐지되고 10분당 1,000원(최소 15분 이내 무료)이 부과되는 요금제로 바뀐다. 상계백병원 직원의 정기 등록 차량을 기존 80대에서 40대로 축소하였고 요금은 12만 원에서 24만 원(100%)으로 인상하였다. 이밖에 교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주차비 지원도 폐지했다.

학교 주차장은 총 112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 정기권과 일반요금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일일 평균 200대로 증가했고 특정요일과 시간대는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했다.

사무관리팀 양희정 팀장은 주차장 이용이 감소 되는 방학 기간에는 병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정기권 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립생활관 시설, 인테리어 새 단장

시설팀장
후원자의 고마운 헌금에 거듭 감사

일립생활관 1층 화장실과 2,3층 내부가 시설관리팀(팀장 박태용)의 보수공사를 거쳐 아늑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생활관 1층 화장실 출입문이 투명한 강화유리 도어로 교체됐고 내부가 우아한 회색 타일로 탈바꿈하였다. 단독 수전과 변기, 샤워기도 모두 교체되었으며 LED 전등이 시공됐다.

각 방에는 기존의 2층 철제침대가 아닌 신형 벙커 침대로 교체되었다. MZ 세대의 개인별 취향을 잘 반영된 벙커 침대는 책걸상과 침대 수납함, 옷장이 일체화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전체 각 방의 내부와 복도 전체 면에는 차분하면서 안정감 있는 옅은 회색 페인트로 단장되었다. 2, 3층 복도의 중앙 로비에는 개학 전까지 안락한 1인용 의자 세트가 배치될 예정이다. 방과 복도 조명도 순차적으로 LED 전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박태용 시설팀장은 “일립생활관 시설 개선은 최수일 장로, 장순복 권사 부부 후원자의 선한 의지와 우리 팀원들, 교직원 모두의 열정이 더해져 1차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번 공사에는 시설관리팀원들의 자체 기술력으로 전 과정을 직접 완공시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보수공사를 거쳐 새롭게 단장된 일립생활관 1층 화장실 모습



신입 송소윤 직원 시설관리팀 근무

송소윤씨가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송소윤 직원은 한세대 IT학부에서 정보통신학과를 수료하였으며 닥트 시스템 설치, 인테리어와 타일 시공 등에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확실한 책임 의식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권 총장

총장실에서

8 월입니다 .

총장으로 첫 학기를 보내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 2 학기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

1. 생활관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

생활관 시설의 노후는 우리의 오랜 고민이었고 교내 생활 만족도를 잡아먹는 블랙홀이었습니다 . 시설 개보수로 방과 복도 그리고 화장실이 개선되었고 방마다 새로운 침대가 들어와 학우들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

2. GS 25 가 입점할 것입니다 .

학생들이 오랜 시간 원했던 편의점이 복사실과 매점까지 확장된 넓은 장소로 입점합니다 . 오전 8 시에서 오후 7 시까지는 유인으로 운영되고 그 후에는 무인 형태로 유지될 겁니다 . 이젠 학생들이 교내 밖으로 나가 물건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교내에서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식사의 질이 높아집니다 .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될 경우푸드는 가천대와 용인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입니다 . 운영은 채플과 휴식 시간 (오후 2~4 시까지) 을 제외하고 오전 11 시에서 오후 6 시까지 열게 됩니다 . 이전보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이용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 학생들의 건의대로 한식이 주메뉴이며 가격은 6 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

4. 보행 환경이 안전해집니다 .

주차요금이 8 월 1 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 외부 차량 주차를 줄여서 이전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차의 최종 목적은 교내의 안전 확보입니다 .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교내에 스쿠터와 택배 및 배달 음식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 후 진행하게 될 겁니다 . 여러 단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자세한 공지 사항은 사무팀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

5. ESG 환경이 강조될 겁니다 .

지구를 보존하고 미래 시대를 위한 환경운동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작은 실천이 요구됩니다 . 교직원과 학생들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면 환경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번 밀알 훈련은 ESG 강사와 함께 모든 학생에게 셀카를 찍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텀블러를 제공하며 학교의 구호인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 KBU」 가 영문으로 새겨집니다 .

6. 새로운 형태의 전도 집회가 진행될 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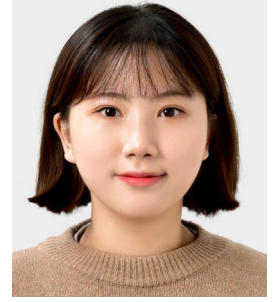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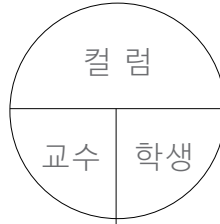
총장의 궁극적 행정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학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재 복음을 들어야 할 학생들의 수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개강과 함께 갖는 부흥사경회가 학생들 눈높이에서 우리 시대의 연예인을 통해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 부흥사경회 첫날에 조혜련 집사 , 둘째 날은 이성미 집사이며 셋째 날 신애라 집사와 마지막은 정선희 집사가 강사로 참석합니다 . 이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성서대학의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 학우들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과 강이 있지만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우리 대학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 학우들은 우리 대학의 가치를 알고 한국성서대학교에 다닌다는 강한 긍지를 ,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이 충만케 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총장의
편지



배진형 교수(사회복지학과)



서수정(사복4)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작은 자들의 큰 소망!

벌써 30년 전, 동부아동상담소에서 범법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던 당시, 매주 새로 온 청소년과의 면담 결과를 인테이크 양식지에 기록했었다. 항목 중에는 네 글자로 친부친모, 친부계모, 친모부결, 친부모결 기입란에 행정적으로만 기록했다. 그런데 나의 26살 겨울, 아버지가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싸늘한 주검과 맞이하던 그날 이후, 장례 마치고 돌아온 일터에서 '친모부결'을 적는 내 마음이 크게 변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굴곡과 영향을 남겼다.

이후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유학후 우리 대학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다. 그런데 작년 초, 내 마음은 또 근간 없이 무너졌다. 친정엄마의 치매 판정을 시작으로 남동생 질병과 십 수억의 빚, 앞이 캄캄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였고 생전 처음 겪는 일들. 함께 살던 두 집의 이사 문제와 함께 급기야 내 허리에는 심각한 통증까지... 혼자 끙끙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해결책은 없고 깊숙한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잠은 1시간마다 깨기가 반복되었고 밥맛은 물론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다. 기운 없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웃는 얼굴로 답하며, 산듯 죽은 듯한 1년 반이 그렇게 지나갔다. 지금 친정엄마는 여전히 치매가 진행 중이고 남동생과 올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을, 남편도 열심히 직장생활 중이다.

그동안 나는 금요일마다 회복기도회에 나가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이 함께해 오셨음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무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였던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거머쥐던 의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됐다. 엉망진창 어찌해도 안 맞춰지고 퍼즐과 같던 상황을 통해, 내려놓음의 필요성을 보게 해주셨다. 이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작고 따스한 사회복지인으로 쓰여지길 바란다. With Jesus!

꿈이 무너졌을 때

'한 쪽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확실했던 꿈을 내려놓을 때 이 말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확실한 꿈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안정적으로 그려 나갔습니다. 확실한 꿈이 있으니 해야 할 일과 방향까지 알 수 있었기에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가치 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꿈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걸 경험하며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 많은 활동에 몰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꿈에 저를 맞춰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결국 맞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꿈이 없어져 생긴 불안감에 조언도 구해 보고 그에 맞는 활동으로 안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꿈과 안정이 아닌 먼저 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걸 알게 되어 조급함을 내려 놓고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다시 여유 갖고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느끼지 못한 감정과 또 다른 저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이후 다시 새로운 도전도 시도하였고 그러면서 실패도 겪었습니다. 작은 성공도 맛보며 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방향이 아니라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힘든 고비와 실패로 모든 걸 내려 놓아야 할 때가 많겠지요. 그때마다 닫힌 문 앞에서 열심히 짚게 슬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추슬러 할 수 있는 다른 새 길을 간구하고 힘차게 걸히면서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하다고 여긴 꿈이나 계획이 허무하게 좌절되어도 오래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새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도전하는 멋진 청춘이길 희망해 봅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한 되 반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소설가 김훈은 2019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훈은 지인의 화장장에 다녀오면서, 한 되 반 정도의 뽕가루를 보고 삶과 죽음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뽕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체의 먼 흔적이거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 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뽕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적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우므로 나는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 낼 수 있다.”

김훈은 인생의 무게에 비해 인간이 이 땅에 남긴 건 고작 한 되 반 정도에 불과한 뽕가루의 가벼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죽음이 남긴 뽕가루를 명사가 아닌 ‘흐린’ 형용사로 표현하며 죽음의 자연스러움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한 되 반 정도의 뽕가루만 남기고 조용히 흐려지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5:24)

인간의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용서하심을 받을 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의 죽음은 ‘한 되 반’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1

봉숭아 박은옥 작사 정태춘 작곡

초저녁 별빛은 초롱 해도
이 밤이 다하면 질 터인데
그리운 내 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기다리나

손톱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 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매어주던
굽디고운 내 님은 어딜 갔나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걸쳐 나타나듯
고운 내 님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소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님도 나오시고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https://blog.naver.com/hkc6472/220734532785>

여름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이글거리는 햇빛을 파랑 하양 노랑 분홍 주황 빨강으로 피어나게 하는 기적의 계절! 닭장 옆 달개비, 돌담 사이 채송화, 우물가 분꽃, 마당 가 달맞이꽃, 장독대 맨드라미, 울타리 밑 봉숭아…… 헤아릴 수 없는 색색의 꽃들이 여름을 물들이고 있다.

이중 여름에 할 수 있는 봉숭아 꽃물 들이기! 안도현 시인 역시 <그리운 계절 사내가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며>에서 “사랑이여 나에게도 붉은 마음 한 조각 있습니다. 첫눈 오시기 전에…… 첫눈 오시기 전에……”라며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봉숭아꽃이 피었다. 애잔함과 그리움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꽃, 열 손가락 가득 봉숭아 물 동여맨 채 뒤척뒤척 잠을 설치면서도 되뇌는 말은 ‘첫눈이 올 때까지 꽃물이 남아 있을까……’이다.

Cafe DE STIJL (카페 데 스틸)

섬 1 최정권 . 202407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7호



곡선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직선만 사랑했던 몬드리안
안의 그림을 안고 있는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 마음에서 사
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휴가 중 읽겠다며 가져간 책
을 쥐고 있던 손이 풀어지고 새로운 걸 담고 싶던 눈의 욕망
도 사라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

네덜란드어로 ‘스타일(the Style)’이란 이름을 가진 카페를
만난 건 방송 리포터의 소개 때문입니다 . 제주에 내려간다는
말을 들은 그가 꼭 가보라며 추천해 줬는데 사랑에 빠진
건 카페보다 카페 앞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

카페가 고래를 가졌는지 아니면 고래가 카페를 품었는지
모를 정도로 커다란 문신을 한 카페 창가에 앉아서 바라보
면 섬 안으로 들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 저 섬의 이름
이 무엇일까? 어느 시대에 생겼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그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알고 싶었습니다 . 섬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의 흐름
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깊은 고요
함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



첫 경험이었습니다 . 보이는 섬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려보고 싶고

섬보다 시간이 흐르고 변해가는 섬이 걸어간 발자국을 그
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 카페에서 느꼈습니다 .

그림은…

그림은…

사랑이야 .

발달 장애 강사가 교직원에게 장애인식 개선교육 진행 중이다.



다문화이전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 서울 장애인부모연대의 함께하는 2인 3각 전문인과 발달 장애 강사가 참여했다.

개선 교육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제 접근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 주었다. 장애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발달 장애 강사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현재의 업무, 하고 싶은 일과 향후 원하는 인생의 꿈 등에 관하여 인도했다.

교직원들은 장애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도 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임상미술상담사 박미희]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배달된 여름 김장 김치



월계중화사회복지관

여름 김치 나눔

10일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주민에게 여름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내 식생활에 어려움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행사이다.

올해는 온라인 카카오톡이기와 개인 후원자, 월계희망마을공동체의 주민팀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저소득 주민 463세대에 포기김치 5kg씩을 지원하였다.

최근 여름 장마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및 심리적 위축을 받는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정성과 손길을 담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했다.

[복지서비스팀 / 김은지 주임]

아로하포레스트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아들의 밝은 모습



꿈빛어린이전

'아로하포레스트' 물놀이

19일, 만 3~5세 유아들은 '아로하포레스트'로 물놀이를 다녀왔다. 실내 수영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풀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시설 전체를 단독 사용할 수 있어 꿈빛 단독으로 추억을 남겼다. 준비체조와 안전 수칙을 확인 후, 안전 장비(구명조끼, 유아용 튜브, 물안경)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겼다.

유아들은 물놀이용 슬라이드, 튜브 이용 물놀이와 물안경 끼고 잠수하기, 공놀이 등으로 유쾌하고 시원한 여름 놀이를 만끽하였다. 식사 후, 실내 풋살장과 클라이밍, 자동차놀이, 역할놀이 등의 공간에서 취향에 맞춰 즐겼다. 유아들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과 다시 오고 싶다는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백합반 강욱경 교사]

청주 흥덕교회에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한 청년부원들 모습



성서대학교교회

청년부 아웃리치

7월, 각 부서별 여름 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미취학부서(13~17일)를 시작으로 초등부와 청소년 및 청년부가 각각 성경학교와 국내 아웃리치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청년부의 아웃리치가 성서대학교교회 한 청년의 모 교회인 청주 흥덕교회(25~27일)에서 'IN N OUTBACK' '하나님 사랑으로 IN 세상의 빛으로'로 진행되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는 청년들의 철저한 준비와 열정의 기반 위에 인형극까지 선보여 주님의 사랑을 실감 나게 전한 시간이 됐다.

장년부는 흥덕교회의 넓은 시설 개보수 조명등까지 교체하며 귀한 섬김의 분을 보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오종철 목사]

1 분 영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상계백병원

1 분 영화제 장려상 수상

28일,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최한 '소통' 주제의 1분 영화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는 '소통' 과정에서 상호 간 요구되는 존중, 경청, 공감 등 키워드로 핵심에 접근했다. 각 키워드 사이 단절로 생긴 마음의 상처에 그동안 긍정적으로 받았던 마음의 꽃을 다시 피워낼 수 있음을 표현하였고 나아가 만사란 마음 먹기에 달려있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연출하였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함께 기쁨을 나타내 주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강사가 장애 영유아의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아이종합지원센터

장애 영유아 부모 워크숍

'서울시 장애 영유아 부모 워크숍' 4회기(6월 28, 7월 5, 12, 19일) 과정에 영유아 주 양육자 9명이 참여했다.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 장애 자녀 양육을 돕는 교육이다. 양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태도, 의사소통과 행동 문제 해결에 비중 두었다. 효과적 접근법과 기술을 익힘으로 자녀의 건강과 부모의 양육력 강화를 지원해 주었다.

네이버 밴드 온라인을 통해 발달 지연 장애 자녀지원의 기초 및 긍정적 행동지원 솔루션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김선화 특수교사]

포천 시냇물교회에서 진행된 '보나 여름캠프' 에 함께한 참가자들



상계동어린이집

보나 여름캠프

5일, 만 4.5세 대상으로 '보나 여름캠프'가 포천 시냇물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게임과 놀이로 더위도 물리치고 즐거운 추억을 쌓게 하는 취지였다. 주변의 초록 가득한 논 풍경을 보며 친구, 교사를 향해 물총의 물줄기를 분출하는 유쾌한 시간도 가졌다. 낚시 놀이, 비눗방울, 물풍선 놀이 등 시원한 물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농촌길 산책, 멋진 자연 속 여름 캠프의 추억을 비치백에 그려 넣는 순간을 기념했다.

원장이 직접 정성껏 점심을 지어 대접하는 모습이 아이들은 큰 감동과 소중한 추억을 새겼다. 행운 뽑기로 선물을 안겨 주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 캠프가 되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늘사랑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 워터파크

26일,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늘사랑 워터파크'가 어린이집에서 진행됐다. 물놀이는 풀장에서 헤엄치기,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워터비즈, 낚시놀이, 얼음 속 비타민 찾기 등 다양하였다. 즐기는 모습들로 함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즐거운반 부모들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도록 안내하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함성과 웃음으로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즐거운반 유호이 교사]

강사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폭력대화법을 안내하고 있다.



말계우리산면

비폭력대화법 교육

18일,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서로를 돌보는 비폭력대화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가정폭력이 부부관계에서 존속, 비속, 친족폭력으로 확대되고 원인도 성격, 가치관, 경제, 문화, 교육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상호 존중의 대화법 등을 배우고 신뢰 향상 등을 안내하였다. 가족 간 상처주지 않으며 마음을 솔직, 명료하게 표현할 방법에 공감했다. 타인 이야기도 존중하며 듣는 비폭력대화법도 연습하며 익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알게 돼 유익했다며 지속적 개최를 원했다. 부부 참여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계획해 갈 예정이다. [정민영 과장]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100만원(건축)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	-----------	------	-----------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부설기관	일 반
1구좌 권슬기 김예진 김은경 김재한 배은휘 심두한 이상진 정영교 황보혜영	3구좌 배정숙 교직원 및 가족 2구좌 조철남 5구좌 김원빈 10구좌 김주아 원영희 12구좌 김덕현 김용기	10구좌 장수진 밀알교회 1구좌 서효정 평화교회 1구좌 안종민	1구좌 박해숙 서미영 신용강 심미영 오미라 유현석 2구좌 김의남 박문수 3구좌 왕순희 5구좌 이천화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부설기관	일 반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애솔 강욱경 강은해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호 고대운 광미화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용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완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신태 김성균 김세현 김수연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희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빈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경주 배해순 백명희 백은옥 백연주 백해송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재엽 오아를 우현아 원윤희 유미경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진리 이채너 이철승 이학준 이혜렬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은성 임찬웅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영수 전영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치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은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예린 강해든이 설에스터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1만5천원 강나경 고난홍 고성호 고재민 2만원 각지유 구연민 국소영 김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두영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수정 김연정 김영래 김유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종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박해숙 소경숙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오현주 유미경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수경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홍희	이현우 임삼일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지다은 최가현 최선옥 최수지 최윤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홍진옥 황혜주 황인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우종엽 문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송인성 신은진 5만원 김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 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화도드림교회 6만원 양연선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김상진 서수경 신치선 이기훈 11만원 유선미 22만원 성낙표 28만7천원 표길홍 68만8천원 이호우 100만원 이례장학	김은주 김혜미 양은성 윤예원 이동기 이마숙 이상란 이상령 이연식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강현중 박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보선 박명규 박혜신 송동수 송세희 신동숙 연성희 오명미 이경민 이미영 이선경 이상진 이승찬 이은영 이혜봉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장호 함은애 황미숙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전희문 최정규 4만원 김형태 5만원 손미연 안종현 이재현 정주화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30만원 박지홍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광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사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하희수 하유민 요시다고조 하늘사랑 2만원 강민경 강승헌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지애 민경은 박은주 배민정 안 호 오철승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남영 최미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기부자 명단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윤혜진	1만5천원 정찬수	1만원 손미희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20만원 서문교회	장자교회	10만원 서미혜
4만원 김덕원	성서대학교회	4만원 권정숙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3천원 박용숙	5만원 장자교회	30만원 박순정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9천원 오경모 이상록 이 천 정갑순	주향교회	단체 및 기관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정화선	1만원 유병우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6만원 권순범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2만원 정우진	/늘푸른교회
7만원 임환석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3만원 주향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락규상 김덕현	1만8천원 고나경 고미숙 권정화 김덕현	중앙성서교회	/무진인터내셔널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상은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주님손교회
김정숙 김우자 김태규 김현광	김성은A 김성진C 김성철 김애	최영란	/행복한교회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김유미 김인영 김지윤 김진철	2만원 강영애.신한성 신영옥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박태용 배진형 신금주 안형선	김향순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이준구.안춘자	(주)에이스외식산업
안현미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박영신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도새기짘/동신자원
유정선 이성이 이소정 이슬기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박태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방미경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중앙성서교회원로·은퇴장로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최시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송형기 안봉숙 양태환 오중철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주식회사 이수전기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용정자 유부자 윤도진 윤재필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4만원 플랜팅시즈
김정원(영)	이대우 이무현 이봉호 이소정	12만원 황인돈.김순자	5만원 다드림교회
11만원 최지은	이승림 이영진 이정숙 이정자	15만원 이혜선	/본도시락 중계점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이중욱 이주현 장근문 장기영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사랑샘교회
13만7천원 최정권	장진희 장혜린 장홍림 정나영	퇴계원제일교회	/상일교회/에일에드컬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정선희 조영희 조정선 최인숙	1만원 유재란	/한일성서교회
안정선 이한영	하은희 황사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행진교회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2만7천원 김은미 선종인	평화교회	10만원 (주)바나나
정해덕 정취진 조윤경	3만6천원 강미경 김민자 김인자 김춘환	1만원 안종민 안지선	(주)이레E&C이레디자인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박 선 반해빈 반해성 유중엽	함평대동교회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35만원 최선희	이경신 황서린	1만원 김희경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부설기관	4만5천원 강유진 권경만 박은경 유형창	효성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성일	1만원 진경숙 진효숙	/미사목민교회/상록교회
임재택 호하나	5만4천원 김영현 김유미A 김현석 박진석	일 반	/서부중앙교회
2만원 진양희 홍옥주	반세호 이숙영 최선희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변송이 안미희	6만3천원 정도유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철원제일교회/청명교회
장나혜	7만2천원 박선하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평안교회(신병수)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9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박세건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20만원 (주)소원기건
이지연	박은유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최순남 한진호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100만원 동서환경(주)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박은오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20만원 김신덕 차 건	성서선교회	윤준영 이관현 이시랑 이성영	
35만원 오동준	2만원 금촌성서교회	이성태 이상희 이우윤 이원주	
권선제일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1만원 이상규	5만원 동두천성서서삼김교회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5만원 권선제일교회	10만원 달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동광교회	수원교회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위샬러듀	
밀알교회	어린양교회	2만원 강영옥 권소영 길미금 길옥석	
1만원 서효정	1만원 김정희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재균	
삼일성서교회	2만원 한지화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1만원 김초롱 오성근 정혜란 한금순	3만원 임윤창 어린양교회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서문교회	7만원 이정선	홍춘호 평화의교회 행복한교회	
1만원 강선에 박경자 윤인호	이레교회	3만원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4만원 정형채	

소계(20240621~20240720) 32,200,886
누계(20240301~20240720) 399,448,846

한국성서대학교 8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513,386원)

이호우(동문) 688,330원 / 송화강(재미교포) 300,000원 / 표길홍(동문) 287,000원
최정권(총장) 137,666원 / 오윤선(교직원) 1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20구좌, 연간납입예정액 2,400,000원)

10구좌 김승호(교직원) / 박태용(교직원)

일시납 누계(3.1~7.22) 70,166,061원 약정자 누계 (3.1~7.22) 78구좌 / 연간납입예정액 9,360,000원